PC모드의 인쇄 레이아웃을 끄고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夏開冬佳花

: 여름에 피고 겨울에 아름다운 꽃



20xx. 06

싱그러운 바람이 콧잔등을 간지럽히는 무더운 여름날,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 상홍초등학교

잘 아는 그곳,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산과 강, 그리고 또 산 산 산… 산 넘어 산이라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가뜩이나 깊숙한 시골 마을인 데다가 주위를 둘러보아도 온갖 풀떼기, 허허벌판! 덕분에 이 주변에 초등학교라고 부를만한 곳은 이곳 하나뿐입니다. 초등학교가 하나뿐인데도 시골의 특성상 학생 수는 많지 않아서 한 학년 당 한 반만 있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상홍 초등학교는 인근에서 깊은 역사를 자랑합니다. 학교 이름답게 교화는 낙상홍, 교훈은 *노력하는 자가 열매를 맺으리.* 전반적으로 어딘가 고리타분한 구석이 있고, 옛 티가 나는 학교인 건 분명하지만 뜻밖에 졸업생들의 평은 좋은 편입니다.

한가지 흠이 있다면 지어진 지 오래된 허름한 시설 정도가 있었습니다만, 불편을 호소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청을 수용해 작년에 시설을 신식으로 개설했습니다.



▶ 초등학교 지도

있는 것이라고는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넓은 운동장과 매년 봄 새로운 꽃을 심고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대형화분, 매주 당번이 먹이를 주며 학생들이 사랑으로 관리하는 토끼장, 그리고 작년에 새로 지어진 매점, 마지막으로 여름에만 잠시 가동되는 운동장 구석에 작은 분수대가 정도가 전부인 소박한 학교입니다. 운동장 곳곳에서 아이들이 정성껏 쌓아놓은 돌탑이, 정겨운 교실의 뒤편에는 형형색색 크레용으로 칠해진 낙서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풍경입니다.

여전히 무더운 여름, 우리가 입학한 지 어언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달 뒤 처음으로 여름방학을 맞이합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잘 지내봅시다!

20xx. 11

이른 새벽 코끝을 스치는 차가운 공기, 이제는 정말 겨울입니다. 안 그래도 추운 날씨, 집을 나서는 길은 왜 이렇게 또 멀게만 느껴지는지... 그래도 힘내서 학교로 등교해봅시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요.

❁ 상홍고등학교

이 시골에 단 하나뿐인 고등학교이자, 우리가 현재 재학중인 고등학교입니다. 우리는 상홍 초등학교를 거쳐서, 상홍 중학교를 함께 졸업했을 뿐더러 이 상홍 고등학교에서도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왔습니다. 지금도 학교 곳곳에는 너무나도 익숙해진, 이제는 정이 든 얼굴들이 보입니다.

초, 중학교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설립되어 올해로 개교 85주년을 맞았습니다. 시설은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만 갖추어져 있습니다. 도저히 신식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생활의 흔적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학교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은 건물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 수는 여전히 학교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큰 규모의 건물이 아닌데도 쓰임새를 잃고 남아도는 교실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마저 정겹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바로 상홍 초, 중 고등학교의 마지막 입학생이자 졸업생, 마지막 기수입니다.

학생정원이 학교를 운영할 최소한도 채워지지 않자 결국 올해 상반기 폐교를 결정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폐교 소식에 당황도 잠시, 바쁜 학업 때문에 그간 눈 코 뜰 새 없이 지냈습니다. 결과는 모르겠지만 모쪼록 수능도 무사히 치뤘고, 더이상 수행평가에 매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유로운 한 때를 만끽하려던 찰나, 우리에게 메신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web발신]

상홍 고등학교 재학생 여러분에게.

부모님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 교문에 발을 내딛던 여러분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한데 어느덧 이렇게 성장해서 고등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유서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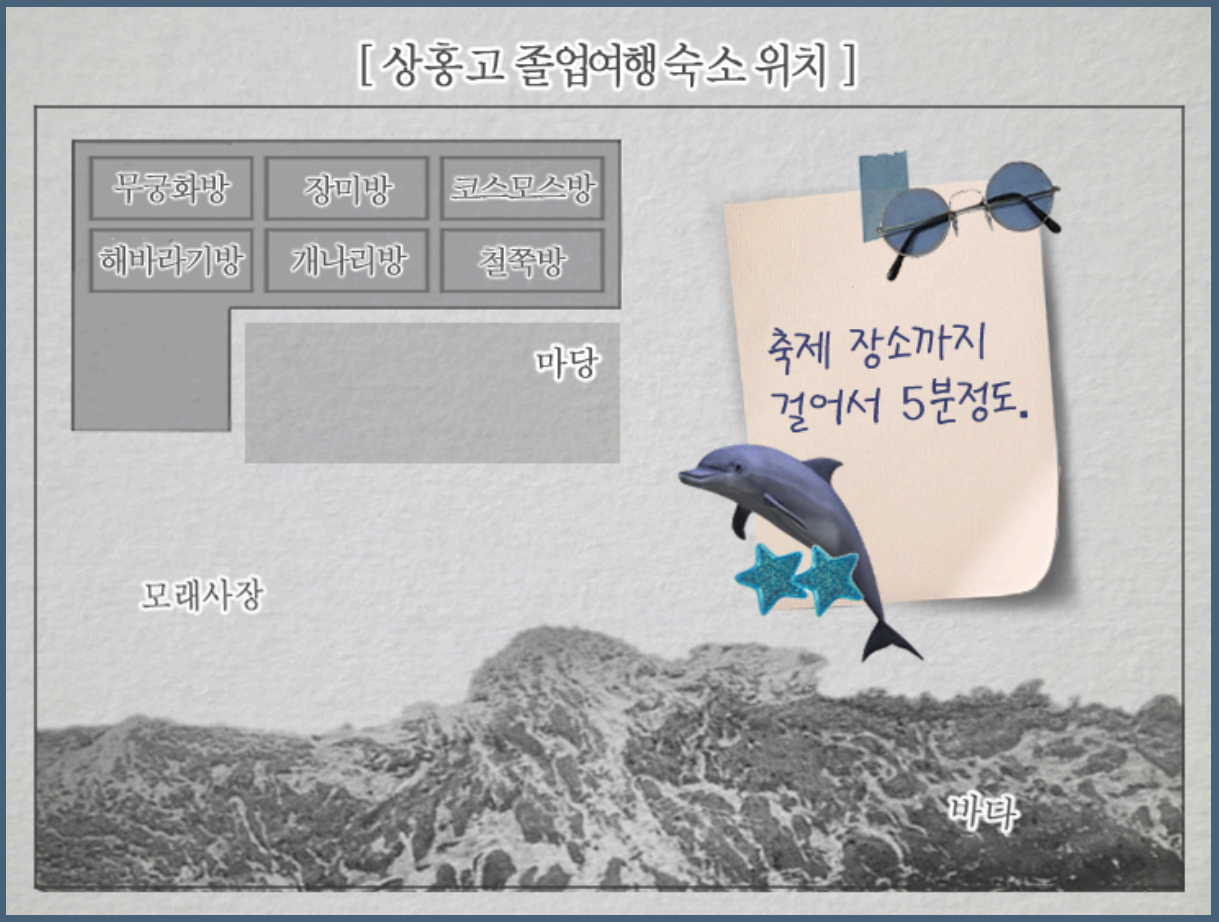
상홍 초 중 고등학교의 폐교가 결정되어 큰 시험 앞두고 심란했을 학생 여러분을 떠올리니 그저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무사히 시험을 치르고 이로써 인생의 큰 산을 하나 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지막 졸업생이 될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표하고자 시 차원에서 마지막 기수 졸업여행을 보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행기간동안이라도 결과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감을 넓은 바다로 흘러보내고 그간 가족처럼 지내온 내 정다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졸업 여행? 바다? 지난 12년간 열심히 학교를 다녔던 대가를 이렇게 보상받는 걸까요? 보내준다는데 바닷바람도 쐴 겸, 학창시절을 마무리한다는 마음으로 다녀오는 것도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학생으로서의 마지막을 추억하는 여행을 위해 모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역시나 익숙한 얼굴들 뿐입니다. 어쩌면 시간이 흐르면 그리워질 얼굴들과 우리는 떠나는 기로에 오릅니다.



▶ 숙소 지도

숙소는 적당히 우리 모두가 머무를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다른 손님 없이 우리가 이 곳의 모든 방을 다 쓰나 봅니다.
건물 바깥으로 나오면 펼쳐진 모래사장과 그 너머에서 흔들거리는 파도, 겨울이니 들어간다면 추울 게 분명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머무르는 기간 중 축제가 열린다고 했던가요? 그래서인지 마주치는 다른 이들마다 약간의 들뜸이
서려있습니다.

얼떨결에 오게 된 여행이지만 차가운 바닷바람과 들뜬 분위기에 우리도 조금 설렙니다. 놀러 왔으니 최대한 즐깁시다,
이렇게 예쁜 겨울 바다는 흔치 않으니까요.